

## 보령화력발전소 연료 공급의 새로운 활로를 열다

The 3rd fuel unloading dock of the Boryeong Thermal Power Plant



Toward  
Global  
Top Tier

Hyundai E&C completed the construction of the 3rd fuel unloading dock at the Boryeong Port, Chungcheongnam-do, on July 1. The completion of the 3rd dock with a 280-meter unloading dock and a 270-meter access trestle has enabled 200,000-ton vessels to berth at the Boryeong Port. Due to the successful completion of the construction, eight units of the Boryeong Thermal Power Plant can be more easily supplied with fuel. Expectations are high for obtaining additional deals offered by Korea Midland Power such as dredging work in coastal waters of the 3rd fuel unloading dock. **▶** Continued on page 6,7

현대건설이 충남 보령항에 시공한 보령화력 제3연료하역 부두가 7월 1일 준공했다. 하역부두 약 280m, 진입가대 약 270m의 제3부두 건설로 보령항은 20만t급 선박의 접안이 가능해졌다. 덕분에 총 8기를 갖춘 보령화력발전소의 연료 공급이 더욱 수월해질 전망이다. 또한 이번 프로젝트로 한국중부발전이 2019년 발주 예정인 제3부두 앞바다 준설 공사 등 추가 수주에도 기대가 쏠리고 있다. **▶** 관련기사 6,7면

## Opening of double-track Seohae Line

The Seohae Line linking Sosa and Wonsi was opened on June 16 after seven years and two months of construction.

Hyundai E&C kickstarted the construction in 2011 to build the 23.4-kilometer dual-track rail line running north and south of Siheung-si. The Seohae Line project costs about 1.7883 trillion won. Korea's primary builder was in charge of sections 1 & 2 among a total of four construction sections. The section 1 was aimed to build the 6.58-kilometer double-track tunnel and four stations, and the section 2 was designed to construct the 7.372-kilometer dual-track railway, two stations, two tunnels, and cut and cover boxes.

"All employees of the construction site made concerted efforts to address changes in design and construction method, and various civil complaints, leading to the successful completion of the project," said an official of the builder. "The opening of the Seohae Line is expected to enable residents in the southwestern region of the capital area to make use of the public rail network in a safe and convenient way."



## 수도권 서부를 가로지르는 서해선(소사~원시) 복선전철 개통

현대건설이 시공한 서해선(소사~원시) 복선전철이 7년2개월의 공사기간을 거쳐 지난 6월 16일 개통했다.

2011년 착공한 서해선은 경기도 시흥시를 남북으로 관통해 부천 소사에서 안산 원시까지 연결되는 총 23.4km의 복선전철로, 총 사업비 1조7883억원 규모다. 서해선은 향후 남쪽으로는 서해선(홍성~원시), 장항선, 전라·호남선과 연결되고, 북쪽으로는 대곡~소사선, 경의선과 이어져 남북 간 종단 간선 철도망을 구축하게 된다.

현대건설은 총 4개 공구 중 1,2공구의 시공을 맡았다. 1공구(지분율 63.33%)는 총연장 6.58km에 4개 정거장과 전 구간 터널을, 2공구(지분율 66.99%)는 총연장 7.372km에 2개 정거장, 2개 터널, 개착 박스 등을 포함한다.

한편, 개통을 하루 앞둔 6월 15일 시흥시청역 인근에서 개통행사가 열렸다. 행사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한국철도시설공단 김상균 이사장을 비롯해 현대건설 토목사업본부 신윤철 상무 등 총 800여 명이 참석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설계 및 공법 변경, 각종 민원 등 어려움을 딛고 전 직원이 합심해 성공적인 준공을 이뤄냈다"며 "이번 개통으로 철도교통망 소외 지역이던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Our company caps working week at 52 hours

### Hyundai E&C introduces “Smart Work5240”

Our company has kicked off the 52-hour maximum working week since on July 1 in accordance with a revision of Korea’s Labor Standards Act.

The 52-hour maximum working week system is aimed to require companies with 300 or more employees to cut the maximum workweek from 68 hours down to 52. Under the applicable law, all employees comply with 40 hours of the workweek, which can be



extended 12 hours during the week when necessary.

In line with this, our company

has introduced “Smart Work5240,” the working hour management system in which employees can

use their PCs or smartphones to input and search the start and end work time. The system enables all executives and staff members to autonomously manage their working hours and minimize unnecessary overtime work. Starting with overseas construction sites in April, our company offered briefing sessions regarding shorter working hours to all employees working at the head office and construction sites at home and abroad.

## 업무 몰입도 강화 ... ‘주52시간 근무제’ 시작

근무시간 관리시스템 ‘Smart Work5240’ 도입

우리 회사가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의거해 ‘주52시간 근무제’를 7월 1일 부터 실시 중이다.

‘주52시간 근무제’는 주 68시간 이던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 하는 것이 골자로, 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모든 직원은 소정근로시간인 주 40시간을 준수하면서 필요한 경우 12시간 이내 추가 근무를 할 수 있다. 아울러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을 통해 본사 및 국내 현장은 2주 단위, 해외

현장은 3개월 단위로 해당 기간 평균 근무시간을 52시간 이내로 운영할 방침이다.

우리 회사는 체계적인 ‘주52시간 근무제’ 시행을 위해 PC 또는 스마트폰으로 출퇴근 시각을 입력·조회하는 시스템인 ‘Smart Work5240’을 도입했다. 임직원은 이 시스템을 통해 자율적으로 근무시간을 관리하는 것은 물론 불필요한 연장근무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됐다.

근무시간 관리지침에 따르면 직

원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중식 시간, 휴게시간 등은 근무시간에서 제외된다. 이 밖에도 병원 진료, 은행 방문 등 개인 용무로 자리 이석 시에는 ‘비업무시간’을 등록하거나 ‘시간단위 연차’를 사용할 수 있다. 본사나 국내 현장은 2주 평균 52시간 도달 시 PC의 전원이 강제로 오프된다.

우리 회사는 지난 4월 해외 현장을 시작으로 본사 및 국내 현장에서 설명회를 가진 데 이어 약 1개월간

본사 21개팀 및 국내외 25개 현장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실시하는 등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힘쓰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삶의 질 향상이라는 범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업무 몰입을 통한 생산성 향상이 기반되어야 한다”며 “전 임직원이 자율적으로 근무지침을 숙지해 근무시간이 법정기준을 벗어나지 않도록 성실히 관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CGN 대산 바이오매스 발전소 수주

우리 회사가 6월 27일 2942억원 규모의 ‘CGN 대산 바이오매스 발전소’ 프로젝트를 따냈다.

CGN 대산전력㈜가 발주한 이 프로젝트는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CGN 대산전력 부지에 109MW의 바이오매스 발전소를 짓는 공사다. 친환경 경순수 목질계 바이오매스(우드펠렛)를 연료로 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로, 연간 71만6000MWh의 전력을 생산하게 된다.

우리 회사는 발전소의 설계·구매·시공·시운전(EPC)을 일괄로 맡았다. 공사기간은 사전 착수 지시서(LNTP)로부터 32개월간이다.



우리 회사 관계자는 “과거 CGN 울촌전력㈜이 발주한 울촌복합화력발전소 1, 2호기 공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쌓은 신뢰와 기술력이 수주에 큰 도움이 됐다”며 “이번 공사를 계기로 국내외 유사 발전소 수주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사우디 송전선·카타르 병원 개보수 공사 수주

우리 회사가 최근 중동 지역에서 꾸준한 수주 승전보를 올리고 있다.

우리 회사는 6월 12일 사우디 전력청(SEC·Saudi Electricity Company)이 발주한 4800만 달러 규모의 380kV 송전선로 신규 건설 공사를 수주했다.

이번에 수주한 공사는 사우디 동부 하라드(Haradh)와 하위야(Hawiyah) 지역 내 총 연장 약 98km의 송전선로 건설공사로, 설계·구매·시공·시운전을 포함한 일괄도급공사다. 공기는 24개월.

우리 회사는 지난 5월에도 7380만 달러 규모의 사우디 ARAMCO 230kV 송전선 공사를 따낸 바 있다.



현재 사우디에서 송전선·변전소 총 14건의 공사가 진행 중이다.

이 밖에도 카타르 도하 하마드 메디컬 시티 내에 위치한 ‘카타르 여성병원 개보수’ 공사도 같은 날 수주했다. 우리 회사는 연면적 2만 8408㎡, 지상 6층 규모의 여성 입원 병동의 개보수 공사를 맡게 된다.

### 그룹사 뉴스

#### 현대자동차그룹, 해피무브 글로벌 청년봉사단 봉사 시작



현대자동차그룹이 6월 27일 서울 계동사옥 대강당에서 현대자동차그룹 정진행 사장을 비롯해 폴란드·한국월드비전 등 협력기관 대표와 대학생 봉사단원 500명이 참석한 가운데 ‘해피무브 글로벌 청년봉사단 21기 발대식’을 진행했다.

이번 21기 봉사단은 7월부터 8월에 걸쳐 약 2주간 인도·중국·우즈베키스탄 등 총 3개 국가, 6개 지역에서 ▶마을 공공시설 및 주택, 학교 건축 ▶마을 발전 아이디어 제안활동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을 도울 계획이다.

한편 현대자동차그룹은 지난 10년간 세계 21개국 111개 지역에 1만여 명의 봉사단원을 파견해 봉사활동을 진행해 왔다.

#### 현대자동차, ‘제3회 브릴리언트 키즈 모터쇼’ 참가작 공모



현대자동차가 ‘제3회 브릴리언트 키즈 모터쇼(Brilliant Kids Motor Show)’에 전시될 참가작품 공모를 실시한다.

어린이들의 상상력으로 그린 자동차와 스토리를 실제 모형 차량으로 제작·전시하는 ‘세계 최초 어린이 상상력 모터쇼’란 타이틀로 2016년 처음 개최된 ‘브릴리언트 키즈 모터쇼’는 회가 거듭될수록 그 인기를 더해가고 있다.

올해 열리는 ‘제3회 브릴리언트 키즈 모터쇼’는 경기도 과천시와 부산에 위치한 국립과학관과의 협업을 통해 고객들에게 재미와 함께 과학 교육적 가치도 제공한다.

### 현장부서 소식

#### 2018 하반기 기술교육원 교육생 모집



기술교육원이 2018년 하반기 교육생을 모집한다. 모집 분야는 9월 3일 개강하는 ▶5개월 코스 4개 과정(플랜트품질/Global HSE/ 플랜트전기/ 플랜트3D설계)과 10월 1일에 개강하는 ▶10개월 코스 4개 과정(건설공사관리/ BIM건설관리/ 건축설비설계시공/ 차량건설기계정비)이다. 접수기간은 6월 18일부터 8월 28일까지다.

실무진들로 구성된 맞춤형 실무교육과 현업 중심의 차별화된 커리큘럼이 특징이다. 전년도 기술교육원 졸업생 중 79%(292명)가 취업에 성공했다.

무료(국가기간전력산업과정)로 교육을 진행하며, 월 최대 31만6000원씩 훈련장려금을 지급한다. 기술교육원 홈페이지(http://edu.hdec.co.kr)를 통해 접수 가능하다.

### PHOTO NEWS

#### 건축사업본부 준법실천 결의대회

우리 회사 건축사업본부가 6월 21일 계동 본사 대강당에 모여 ‘준법실천 결의대회’를 가졌다. 김정철 본부장을 비롯한 임직원 455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는 준법 준수 문화의 정착과 임직원 의식 개선을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김 본부장은 “완



벽한 안전관리, 지속 성장을 위한 파트너십 구축 등 건설산업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의 기대치

는 점차 높아지고 있다”며 “이러한 시대의 요구에 발맞춰 기본적인 준법실천은 물론 ▶품질·안

전 의식 ▶투명 수주경쟁에 대한 굳건한 의지를 가슴에 새기고 업무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 Mountain temples join Unesco list : Sansa contain unique Korean elements

July 02

Sansa, Korea's Buddhist mountain temples, joined Unesco's list of world heritage sites on June 30, joining 12 other Korean locales already on the list. The decision was announced at the 42nd session of the World Heritage Committee in Bahrain.

The inscribed sites include seven monasteries: Tongdo Temple in Yangsan, South Gyeongsang; Buseok Temple in Yeongju, North Gyeongsang; Beopju Temple in Boeun County, North Chungcheong; Daeheung Temple in Haenam County, South Jeolla; Bongjeong Temple in Andong, North Gyeongsang; Magok Temple in Gongju, South Chungcheong; and Seonam Temple in Suncheon in South Jeolla. These temples are at least 1,000 years old, all established between the 7th to 9th centuries

In an effort to get all seven monasteries on the list,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formed the Committee to Promote the Unesco Inscription of Sansa and submitted supplementary information including a sheet correcting errors in the initial submission. It also lobbied other member countries for support. According to the Jogye Order of Korean Buddhism, the international council accepted 11 out of 12 corrected items on the correction sheet, leading the committee to make the final decision on June 30 of including all seven temples. The Unesco World Heritage Centre judged that the sansa have "outstanding universal value" in upholding Korea's Buddhist tradition since the 7th century and that each is considered a "comprehensive monastery."

The spatial arrangement of the seven temples "present common characteristics that are spe-



1 Buseok Temple, above, is one of seven Korean sansa, that joined Unesco's list of world heritage sites. 2 Seonam Temple. 3 Tongdo Temple [COMMITTEE TO PROMOTE THE UNESCO INSCRIPTION OF SANSa]

cific to Korea," Unesco said, such as a madang (open courtyards) flanked by four buildings: the main hall, a pavilion, lecture hall and dormitory. Following the official inscription, the Unesco World Heritage Centre advised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to come up with measures for dealing with an increase in visitors. It also rec-

ommended preservation and maintenance plans for the buildings since they are at least 1,000 years old. Jong Min, a monk in the Jogye Order who was present at the Unesco session in Bahrain, said that he was "pleased at the news, especially at the fact that all seven have been inscribed together."

By KOREA JOONGANG DAILY

## Bidders named for Saudi reactors

July 03

Korea, the world's fifth-largest nuclear energy developer, was picked as a preferred bidder for Saudi Arabia's first nuclear project, the country's Energy Ministry announced over the weekend.

According to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on July 1, the Korea Electric Power Corporation (Kepco), a state-run energy company, was short-listed by the King Abdullah City for Atomic and Renewable Energy to bid to build two nuclear reactors capable of generating 2.8 gigawatts in total by 2030 in Saudi Arabia. Other candidates are the United States,

France, Russia and China.

The government considers the Saudi project to be a crucial milestone in Korea's attempt to become a major nuclear exporter. If Kepco is picked as the final bidder, it would be the second time that Korea has exported its nuclear reactor technology to the Middle East. The winner of the Saudi Arabian project will be



announced next year, according to an official from the Trade Ministry.

By KOREA JOONGANG DAILY

## Hyundai Motor Becomes Global Automotive Partner of Club Atletico de Madrid

Hyundai Motor has announced on June 13 a multi-year partnership with Club Atletico de Madrid, becoming the club's new Global Automotive Partner. From next season the Hyundai brand logo will be presented on the sleeve of the Club Atletico de Madrid jersey in all domestic competitions until 2021. It is the first time that Hyundai has established such a partnership in the Spanish football market and it is the second new agreement



establishing a sleeve presence for Hyundai, following the recently-announced partnership with Chelsea FC of the English Premier League.

## GENESIS Awarded Top Luxury Brand By Autopacifi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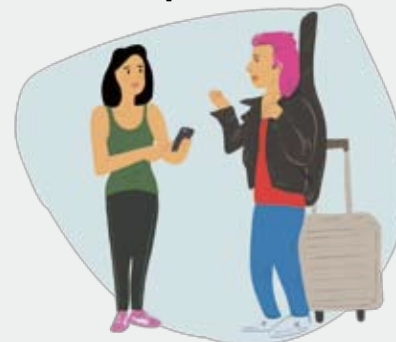
Genesis was awarded Highest Satisfaction Premium Brand by leading research consultancy AutoPacific for the first time, as the Genesis G90 luxury sedan received top billing for the second consecutive year in the firm's annual Vehicle Satisfaction Awards (VSA). Genesis achieved the highest brand satisfaction score to date. "Recognition from Genesis owners through third-party industry leader AutoPacific affirms our positive momentum as a luxury brand



and our commitment to developing innovative, top quality automobiles," said Erwin Raphael, Executive Director and General Manager of Genesis Motor America.

### 10 Minute Korean Lessons

#### At the airport



#### ▶ Arrivals

식당 어디에 있어요?

Where are the restaurants?  
Sheek-ddahng aw-dee-ay ee-ssaw-yo?

저쪽에 있어요.

They are over there.  
Jaw-jjo-gay ee-saw-yo.

#### ▶ Other Expressi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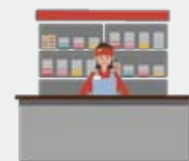
카페

Cafe  
kah-peh



편의점

Convenience store  
pyuh-nee-jawm



버스 정류장

Bus stop  
baw-sseu  
jawng-ryou-jahng



지하철역

Subway station  
jee-hah-chawl-lyuhk



택시 정류장

Taxi stand  
teh-k-shee  
jawng-nyou-jahng



공방의료센터

Medical center  
gong-hahng-eu-ryo-ssehn-teo



국내선 탑승동

Gate lounge for domestic flights  
goong-neh-sawn  
tahp-sseung-dong



수하물 보관소

Luggage storage facility  
soo-hah-mool  
bo-gwahn-so



관광 안내소

Tourist information center  
gwahn-gwahng  
ahn-neh-so



흡연실

Smoking room  
heu-byuhn-sheel

The content above is from 'Korean Phrasebook for Travelers' by Talk To Me In Korean, a company that provides free Korean language learning materials. Check out TalkToMeInKorean.com for further lessons.







운동은 하고 싶으나 더운 날씨 탓에 바깥 활동이 꺼려진다면 실내 스포츠가 정답이다. 스포츠 클라이밍은 실내에서 활동하면서도 전신을 사용하는 고강도 운동이라 여름철에 특히 인기가 많다. <사보신문>은 스포츠 클라이밍으로 여름철 체력 만들기에 도전한 사우들을 취재했다. 손과 발만을 의지해 암장을 오르고 온 사우들의 좌충우돌 도전기.  
글=박현익 / 사진=이슬기

실내 암장에서 환한 미소로 포즈를 취하고 있는 사우들. 왼쪽부터 김성우 차장(기획실), 이규현 과장(총무실), 안성우 과장(플랜트설계지원실), 김수정 과장(홍보실), 함웅식 사원(건축기획실).

## Sports climbing challenge

Sports climbing is popular especially in summer season because players can enjoy the whole body workout indoor. Hyundai E&C Today met five employees who embarked on a challenge to work out for this summer.

Kim Su-jung) Every time I watch sports climbers on TV, I thought they are cool. I applied for this event because sports climbing is known to be a good upper-body exercise.

Ahn Sung-woo) I regularly run 200 km for a month so I feel confident about my fitness. I've always wanted to do sports climbing.

Ham Woong-sik) This is the first time I participate in a company event. I feel excited with the thought of doing sports together with seniors from different business divisions and exchanging new information.

Before giving sports climbing a shot, the participants took a short lecture on sports climbing basics. Climbers are asked to maintain balance of the body while using one hand and one foot alternatively to climb up, and try to keep three points of contact with the wall at all times.

Ham Woong-sik came forward as the first challenger. Following the instruction, he held the first hold with two hands and stepped on a hold to make three points of contact. But after holding for a few seconds, he fell on his behind. "It's not easy as I thought," he smiled a bashful smile.

Next turn was Kim Seong-woo. He moved his body in a slowly yet careful way. The colleagues applauded when his hands touched the last hold. Kim successfully climbed to the top.

Kim Seong-woo) I felt confident until I listened to the lecture. But it was actually not easy to do. I tried to make three points of contact as taught by the instructor, but I found it difficult to achieve a balanced stance on the wall.

After the rest of three challengers successfully got to the top, the instructor raised the level of difficulty step by step, explaining how they should grab the holds to

hold on the wall longer and where they should place their feet to bear their weight of the lower body.

Among the five participants, Lee Gyu-heon was definitely the best climber. He easily completed what he was told by the instructor with a smooth and steady movement even if he said he didn't climb for the past few months.

After they completed the two-hour challenge by doing light stretching, they strongly recommended the experience of sports climbing.

Lee Kyu-heon) I guess it's really addictive. The best part of sports climbing is you can communicate with various people. During a five- to ten-minute break, you casually talk to people next to you and make friends with them.



### 계동 본사 인근 스포츠센터를 소개합니다!

퇴근 직후 운동을 하고 귀가하길 희망하는 사우들을 위해 계동 본사 인근 스포츠센터를 알아봤다. 취향에 맞춰 고르기만 하면 된다.

#### 북촌 탁구

계동 본사에서 중앙고등학교 방면, 카페 공덕의 지하 1층에 '북촌 탁구'가 있다. 분위기는 흔히 생각하는 탁구장과 조금 다르다. 입구에 '책과 음악이 있는 북촌 탁구입니다'라는 인사말이 적힌 나무 포탈이 걸려있다. 박현정 관장은 지난 1월 책, 음악 그리고 탁구를 사랑해 이곳에 탁구장을 열었다. 문을 열고 들어서면 대여 가능한 신발·탁구 라켓·공과 함께 두 개의 탁구대가 보인다. 한구석에는 커다란 책꽂이도 있다. 비회원 가는 단식 10분당 2000원, 복식은 30분 9000원이며 회원가는 월 7만원이다. 레슨은 주 2회 20분간 하며 14만원(월 이용료 포함)이다.

**주소** 서울시 종로구 계동2길 4  
**영업시간** 월~금요일 11:00~22:00 / 토·일요일 13:00~19:00  
**문의** 010-4688-5015

#### 영춘무술연구회

중국 남부 무술의 일종인 영춘권을 배울 수 있는 도장이 중앙고등학교 방면에 있다. 영화 <영문>과 <이소룡>이 배운 권법으로 유명해진 영춘권은 청나라 말기 임영춘이라는 여성이 부친에게 배운 권법으로 알려졌다. 그래서인지 이 무술은 보폭이 좁고 세밀하며, 신체 근육이 밀집된 중심선을 공격한다. 영춘권은 움직임 없이 그 자리에서 상대를 제압하는 초급 소년무(少年頭), 다양한 보법을 기본으로 하는 중급 심교(神橋), 상대의 근육을 공격하고 응용 동작을 만드는 고급 표지(標指)로 나뉜다. 준비물은 밀창이 얇은 운동화와 반팔(반수), 트레이닝 바지이며, 비용은 레벨에 따라 월 기준 12만원, 10만원, 5만원이다.

**주소** 서울시 종로구 계동길 60  
**영업시간** 월~목요일 19:30~19:00 / 토요일 14:00~16:00  
**문의** 010-7397-4655

#### 요가문화원

안국역 3번 출구에서 계동 본사로 오는 길, 손이 네 김밥 건물 3층에 위치해 있다. (사)한국요가문화원에서 운영하는 '요가문화원'은 하타요가를 중심으로 요가 수련을 하는 곳이다. 하타요가는 몸가짐을 다스리고 숨쉬기를 훈련하며 식이요법·단식법·정화법으로 인간의 생명력을 회복하는 요가로 알려져 있다. 탈의실은 있으나 샤워 시설은 없다. 12시부터 진행되는 점심 요가는 서둘러 가지 않으면 자리가 없을 정도로 직장인에게 인기가 많다고 하니 참고하자. 비용은 주 3회 월 10만원이며, 현대건설 직원은 5% 할인해준다.

**주소** 서울시 종로구 계동길 5  
**영업시간** 월~금요일 07:00~20:40 / 토요일 09:00  
**문의** 02-741-0079

#### 안국 골프아카데미

안국역 5번 출구 근처 아람문화원 건물 지하 2층에는 '안국 골프아카데미'가 있다. 골프는 축구나 농구처럼 격렬하지 않아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무리 없이 할 수 있다. 필드에 가려면 드라이버·아이언·어프로치·퍼터 네 가지 기술을 익혀야 하는데, 초보자는 실내 연습장에서 2~3개월 정도 훈련을 거치는 것이 좋다. 골프를 처음 접하는 사람이 다니기 좋은 이곳에는 타석 13개, 퍼팅 연습장 1개가 있다. 월 이용료는 주 5회 강습료 포함 20만원이다.

**주소** 서울시 상대동 469 사원빌딩  
**영업시간** 월~금요일 7:00~22:00  
토요일·공휴일 9:00~18:00  
**문의** 02-737-0509

### 사우 5인 좌충우돌 스포츠 클라이밍 도전기!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어요”

지난 25일 <사보신문> '스포츠 클라이밍 일일 클래스'에 응모한 김성우 차장(기획실), 김수정 과장(홍보실), 이규현 과장(총무실), 안성우 과장(플랜트설계지원실), 함웅식 사원(건축기획실)이 서울 종로의 TCC 더코아 클라이밍센터에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 2월 '야빠'가 되기 전까지 1년간 이곳 센터를 다닌 적이 있다는 이규현 과장을 제외하고는 스포츠 클라이밍이 처음이라고 했다.

"TV에서 스포츠 클라이머 김자민 선수를 볼 때마다 멋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거침없이 암벽을 오르는 걸 보면서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죠. 또 스포츠 클라이밍은 상태를 단련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해서 신청했어요. 암마라 아이를 안을 일이 많은데 상태 힘이 없다면니 늘 힘에 부쳤거든요." 김수정

"한 달에 200㎞를 뛴 정도로 달리기를 열심히 하고 있는 터라 체력엔 자신 있었어요. 스포츠 클라이밍도 해보고 싶었는데, 마침 그룹웨어에 일일 클래스 모집 공고가 뜬 거예요. 반가운 마음에 신청했죠." 안성우

"회사 이벤트에 참여하는 것이 처음이에요. 다른 사원분들에서 근무하시는 선배님들과 함께할 생각을 하니 설레고, 새로운 정보를 교류할 수 있을 것 같아 기대가 커요 (웃음)." 함웅식

**온 몸이 후들후들~ 힘들지만 계속 오르고파**

사우들은 행거온 운동복으로 환복한 후 강사의 지시에 따라 각자의 발에 꼭 맞는 암벽화를 신었다. 강사는 "엄지발가락으로 온전히 다리를 지탱해야 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암벽화는 자기 발 사이즈보다 약간 작게 신는 것이 요령"이라고 설명했다.

짧은 이론 수업을 받은 후 본격적인 훈련에 들어갔다. 스포츠 클라이밍은 첫 홀드(Hold, 돌 모양의 손잡이)를 양손으로 잡고 출발해서 마지막 홀드를 양손으로 붙잡으면 완주이다. 등반의 기본 자세는 몸의 균형을 유지하며 한 팔과 한 다리를 번갈아가며 더고 올라가는 것. 몸을 안정된 삼각형 모양(3지점 이론)으로 잡으며 손이나 발을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다.

첫 주자는 다섯 명의 사우 중 막내인 함웅식 사원. 강사의 지시에 따라 첫 홀드를 양손으로 부여잡고 3지점이 되도록 양 발 또한 홀드 위에 뒀다. 처음 해보는 스포츠 클라이밍에 양팔은 부들부들, 모양새도 엉겨주춤했다. 몇 초간 견디니 싫더니 손 한 번 뻗지 못하고 엉덩방아를 찧고 말았다. 함 사원은 "생각보다 쉽지 않네요"라며 빙긋하는 미소를 지었다.

### 스포츠 클라이밍에도전하자!"



다음 차례는 김성우 차장. "홀드를 잡을 때는 팔을 쭉 펴고, 다리의 힘과 몸의 반동을 사용하면 더욱 쉽게 올라갈 수 있다"는 강사의 조언에 따라 느리지만 신중하게 몸을 옮겨갔다. 마지막 홀드에 두 손을 가져다 둔 순간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완성이었다.

"강사님이 이론 수업을 할 때는 별 것 아닌 줄 알았어요. 홀드를 잡고 측측 올라 가면 될 것 같은데, 영 쉽지 않네요. 3지점을 찾으려고 아이기를 들었는데 막상 올라가니 이론처럼 안정된 자세 잡기가 어려워요. 엄지발가락에도 힘이 엄청 들어가네요." 김성우

김성우 차장의 성공을 본 덕분인지 남은 세 사람 역시 차례로 완주를 이뤄냈다. 이윽고 강사는 난이도를 조금씩 높였다. 사우들은 어떻게 홀드를 잡고 자세를 취해야 오래 매달릴 수 있는지, 어디에 발을 댈까 하체의 힘을 받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한 강습을 듣고 실제로 해보며 운동 감각을 키워 나갔다.

"TV에서는 쉽게 올라가는 것처럼 보였는데 운동이 많이 되네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힘들어서 깜짝 놀랐어요. 팔도 많이 당기고, 다리도 많이 후들거려요. 그런데 참 재미있어요. 팔가 계속 오르고 싶은 충동을 느껴요(웃음)." 김수정

다섯 명의 사우 중 예이스는 단연 이규현 과장이었다. 수개월 스포츠 클라이밍을 쉬었음에도 몸의 흔들림 없이 강사가 내주는 과제들을 손쉽게 마쳤다. 함께 체험을 하는 사우들도 고수라며 엄지손가락을 세울 정도. 이 과장은 "몸도 무거워지고 실력도 많이 저하됐다"며 겸손한 모습을 보였다.

"스포츠 클라이밍은 한두 달만 쉬어도 실력이 조금씩 돌아간다고 해요. 근력과 지구력을 꾸준히 키워줘야 하는 운동이거든요. 오랜만에 해서 무척 힘이 달렸지만, 그래도 즐겁고 재미있었어요. 팔과 등은 좀 당기지만요(웃음)." 이규현

**스포츠 클라이밍, 적극 추천합니다!**

두 시간이 지났을까, 어느덧 체험을 마칠 시간이 됐다.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며 체험을 마친 다섯 사람은 현대건설 임직원들에게 스포츠 클라이밍을 꼭 한번 체험해 보길 '강력 추천'했다.

"처음 해보는 운동이지만 상당히 매력적이에요. 묘한 경쟁심도 생기고요. '보이엔 쉬워 보이는데 왜 안 될까?' '저 사람이 되는 걸 보니 나도 되겠다. 도전해 봐야지'란 생각이 들고, 해내면 성취감도 커요. 삶이 무료한 분, 운동이 필요한 분에게 추천합니다." 안성우

"계동 본사에서 도보 10여 분 거리에 이런 곳이 있는지 몰랐어요. 회사와 가까운 것이 상당한 메리트라고 생각합니다. 퇴근 이후에 무얼 하며 시간을 보낼까 고민하는 동료들에게 소개하고 싶어요." 김성우

"스포츠 클라이밍은 사계절 내내 할 수 있는 것이 장점 같아요. 체력을 많이 썼는데도 실내가 워낙 시원해 전혀 덥지 않았고요. 차장님 말씀처럼 회사 근처라서 퇴근 후 쉽게 즐길 수 있는 스포츠인 것 같아 더 좋아요." 함웅식

"전신운동이라는 것이 실감나요. 첫 번째 홀드를 잡기 전 루트 파인딩(Route Finding, 등반 전 정상에 무사히 오를 수 있도록 길을 찾는 것)을 해야 하니가 머리로 써야하고, 몸 전체의 근력도 필요하더라고요. 스포츠 클라이밍은 10세 이상 아동도 즐길 수 있는 스포츠라고 하는데요. 주말에 색다른 가족 나들이 장소를 찾는 분이라면 꼭 한번 와 보시고요 말씀드리고 싶어요." 김수정

"정말 중독성 있는 운동이에요. 한참 할 때는 잡자리에 누우면 색색의 홀드가 눈앞에 펼쳐질 정도였죠. 네 분이 해보셔서 알겠지만 이 운동이 웬만한 땀이 안 나요. 더위 많이 타는 분에게 딱 좋죠. 무엇보다 좋은 점은 센터에서 각양각색의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암벽을 한번 타고 내려오면 5~10분가량 쉬어요. 그때 자연스레 옆에 있는 사람과 대화도 나누고 친해지죠. 다양한 사람과의 교류를 원하는 사우들에게 적극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웃음)." 이규현



보령 화력 제3연료하역부두 현장

1983년 충남 최초의 발전소인 보령화력발전소가 들어서며 보령항 일대는 대규모 전력 생산단지로 자리매김했다. 이곳에 7월 1일, 제1·제2 부두에 이은 제3연료하역부두가 새롭게 모습을 드러냈다. 제3연료하역부두의 탄생으로 보령화력발전소뿐 아니라 인근의 신서천화력발전소까지 더욱 안정적으로 연료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글=김보나 / 사진=이슬기

Bringing vitalization to Korea's one of the largest coal-fired power plant

The Boryeong Thermal Power Plant has transformed itself into Korea's one of the largest coal-fired power plant complex that supplies power to the capital area as well as the Chungcheong-do region as its Unit 1 was completed in 1983 and Unit 8 in 2008. The Boryeong Thermal Power Plant operates desulfurization and denitrification facilities to recycle byproducts of power generation in an environment friendly way. As the amount of fuel for power generation has been on the rise and the size of vessels has increased, Korea Midland Power, the operator of the Boryeong Thermal Power Plant, set out to build a new dock which can handle 200,000-ton vessels. Hyundai E&C obtained the deal in April 2016 from Korea Midland Power. Construction costs about 54 billion won including indirect cost, and Hyundai E&C has a 70 percent share of the project. The 3rd fuel unloading dock project was expected to start in May 2016, but the schedule was delayed to September due to construction permission. However, the builder successfully advanced the schedule and completed the project on July 1 as originally planned. The 3rd fuel unloading dock project consists mainly of the construction of an unloading dock at which a vessel can berth, an access trestle connecting the unloading dock to shore, and a mooring dolphin designed to secure a vessel to forestall free movement of the ship. Unlike general piers, the 3rd fuel unloading dock has a conveyor belt in the access trestle to deliver coal to shore. In order to cut back on the construction schedule, the construction site worked on onshore and offshore construction at the same time.

Hyundai E&C's technological expertise is evident in steel pile drilling on the bottom of the access trestle, and installation of steel structures on the bottom of the unloading dock. To do this, the construction site adopted the percussion rotary drilling (PRD) mechanism where hammer drills mounted on screws can bore the ground too hard to drill, which could lead to reducing construction schedule and decreasing costs. Offshore construction is considered much more difficult than onshore work because of the ever changing conditions in the sea such as heavy rain, strong wind and heavy seas. What is worse is that the Yellow Sea has a large tidal range. To weather the difficulties, the construction site checked the tidal current on an hourly basis and conducted major construction works for two hours of slack water. In addition, the coastal waters of Boryeong have many cruise ships and fishing boats in different sizes in its narrow seaway, which may result in major accidents. To deal with this, the construction site came up with the elaborate safety management plan to get rid of risk factors and rapidly react to unexpected accidents. The thorough management of personnel authorized to enter the construction site located within the national security facility also led to preventing safety-related accidents. As a result of these efforts, the construction site achieved no accidents across all fields of construction.

Interview

직원들이 믿고 따르는 현장의 아버지  
현장소장 아동재 부장대우



현장의 어느 누구보다 막중한 책임감을 지닌 현장소장, 하동재 부장대우는 무거운 짐을 혼자 짊어지고 해결하려 하기보다 직원들을 믿고 각자 맡은 바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또한 전체적인 업무의 방향을 조율하고 발주처 및 협력업체와 공사 내용을 효율적으로 공유하면서 전 공정 무재해 및 공기 단축이라는 성과를 이끌어냈다. “프로젝트의 성공은 공기 내 안전사고 없이 무사히 마무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노고와 희생을 통해 성과를 내는 것은 직원들입니다. 우리 현장은 그 어느 현장보다도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단합을 잘 이뤘다고 감히 자부합니다. 저를 믿고 따라준 전 직원과 협력사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현장의 A to Z를 책임진 코디네이터  
공사파트장 천중우 차장



각종 해상 공사 및 부두 건설 현장을 거친 천중우 차장은 이번 보령 화력 제3연료하역부두 현장에서 그간의 경험을 아낌없이 발휘했다. 공사 초기 발주처의 사유로 5개월간 공사가 중단됐지만 발주처와 협력사, 우리 회사가 모두 한마음으로 공기 내에 준공하도록 현장을 잘 조율했다. “모든 공사 관계자와 근로자들이 똘똘 뭉쳐서 단 한 번의 공사 중단이나 업체 타절 없이 적기에 준공한 것이 기약에 납니다. 공사가 1년 정도 진행될 중에 현장으로 부임을 오게 돼 초반에는 어려움 정도 있었지만, 소장님 이하 모든 직원이 도와줘 즐겁게 현장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공기단축 일등공신, 해상공사의 베테랑  
공사파트장 김옥기 차장



2016년 12월 부지정지 시험발파를 시작으로 공사가 착수된 이후 김옥기 차장은 모든 공정에 걸쳐 공사 책임자로 역할을 충실히 했다. 특히 하역부두의 주 공종인 핀 파일(Pin pile) 전공 공사를 주야간 2교대로 운영한 결과, 후속 공종인 상부 데크 거치, 데크 콘크리트 타설까지 순조롭게 공사를 이어갈 수 있었다. “야간 공사까지 불사하며 최선을 다한 팀원들 덕분에 공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또 업무를 수행하면서 안전, 환경, 품질관리를 놓치지 않고 발주처와의 신뢰 관계도 지속하기 위해 전 직원이 노력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앞으로 우리 회사의 성과에 큰 디딤돌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일품 시공의 주인공  
품질파트 정주영 사원



정주영 사원은 타 지역 공장부터 현장까지 곳곳을 누비며 품질을 위해 백방으로 뛰었다. 재킷 제작을 검사하기 위해 공장을 찾았고 그라우트 타설, 상부 구조물 거치 후 용접부 및 도장 검사 등 현장 곳곳에 그의 손길이 거처지 않은 공정이 없다. 여름철 그라우트가 굳지 않도록 지연제를 배합해 작업성을 개선한 것도 그의 작품이다. “현장 생활 20주년을 이곳에서 보내게 됐습니다. 그동안의 경험과 지식, 기술을 잘 발휘하도록 노력했는데 준공을 맞아 감회가 남다릅니다. 발주처에서 ‘역시 현대건설’이라는 감탄도 들었는데요. 기억에 오래 남을 것 같습니다. 모든 동료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 석탄화력발전단지에 활력을 불어넣다

보령항, 20만t급 선박을 품게 되다

안면도와 대전 해수욕장 사이, 유람선이나 여객선이 더 어울릴 것 같은 충남 보령 앞바다에 석탄을 가득 실은 대형 화물선이 오간다. 보령 앞바다에 우뚝 솟은 굴뚝들이 위용을 드러내는 보령화력발전소 때문이다. 1983년 1호기가 들어서고 2008년 8호기까지 완공되면서 보령화력발전소는 충청도뿐 아니라 수도권 및 전국에 전기를 공급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석탄화력발전단지로 거듭났다. 화력발전소지만 전 발전소에 탈황·탈질 설비 등을 구비하고 발전 부산물을 재활용하는 친환경 요소도 갖췄다. 당초 6호기까지만 설계됐다가 두 기가 증축되면서 기존의 제1·제2 연료하역부두는 석탄을 실은 배들이 드나드느라 쉴 새가 없었다. 발전에 필요한 연료량이 늘어나고 선박이 대형화되면서 보령화력발전소를 운영하는 한국중부발전은 20만t급 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새로운 부두시설을 짓기로 했다. 우리 회사는 탄탄한 기술력과 해상 공사 노하우를 바탕으로 입찰에 뛰어들었다. 수주에 성공한 것은 2016년 4월. 공사금액 540억원(간접비 포함) 중 우리 회사 지분이 70%다. 착공은 2016년 5월 예정이었지만 인허가 문제 때문에 9월로 미뤄졌다. 그러나 우리 회사의 기술력으로 공기를 앞당기면서 프로젝트는 당초 예정이었던 올 7월 1일에 준공됐다.

기술력으로 이룬 5개월 공기 단축

제3연료하역부두의 주요 구성 요소는 배가 접안하는 하역부두, 육지와 하역부두를 연결하는 진입가대, 그리고 선박을 부두에 고정하는 계선 돌핀 등이다. 일반 부두와는 다르게 부두에서 하역한 석탄을 육상으로 이송할 수 있는 기계설비, 즉 컨베이어 벨트가 진입가대에 설치된 것이 특징이다. 일반적인 공사 순서에 따르면 육지의 부지 정비부터 시작해 점차 진입가대를 축조하고 하역부두까지 지어 나간다. 반면 우리 회사는 공기를 단축하기 위해 육지와 해상에서 동시에 공사를 진행했다. 2017년 3월에 육지에서 연결되는 진입가대 공사에 착수하고, 2017년 4월부터는 해상에서 하역부두 하부 강구조물 설치를 시작했다. 우리 회사가 가장 기술력을 발휘한 공정은 진입가대 하부의 강관 파일 천공(철강으로 만든 관을 발뚎 박는 것)과 하역부두 하부 강구조물 설치다. 강관 파일 천공에 적용된 공법은 PRD(Percussion Rotary Drill)인데, 이는 스크류에 해머를 장착해 천공이 어려운 지반을 뚫어내는 공법이다. 공정 중 기존 설계대로라면 40m 이상의 강관 파일을 천공선에 탑재해야 했고, 최대 26m의 길이의 해상 암반 천공이 필요했다. 서해안의 조수간만 차가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방식은 국내에 있는 해상 장비로는 공정 및 안전 측면에서 리스크가 컸다. 현장 직원들은 대안을 찾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20m의 강관 파일을 사용하고 천공 깊이를 줄이는 대신, 강관 파일 하부에 철근망을 삽입하고 콘크리트를 타설해 안정성을 높이는 방안을 발주처에 제안했다. 이를 통해 공기 단축과 원가 절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었다.

하역부두 하부 강구조물 설치에도 노력을 쏟았다. 개당 420t이 넘는 ‘재킷’, 즉 대형 강구조물이 사용됐는데 하역부두에만 9기의 재킷이 쓰였다. 재킷을 해상 운송 후 크레인으로 거치하고 그라우트(시멘트·모래·물이 섞인 것)로 고정하는 대공사였다. 그라우트 작업을 위해 레미콘을 바지(Barge)선에 실어 해상으로 운반하던 중 6월의 더운 날씨를 이기지 못하고 그라우트가 굳어 버리는 일도 있었다. 공사팀과 품질팀은 아침 일찍 타설 시작 시간부터 퇴근 시간까지 그라우트 운반 사이클을 검토하고 배합을 수정해 최고의 품질을 구현해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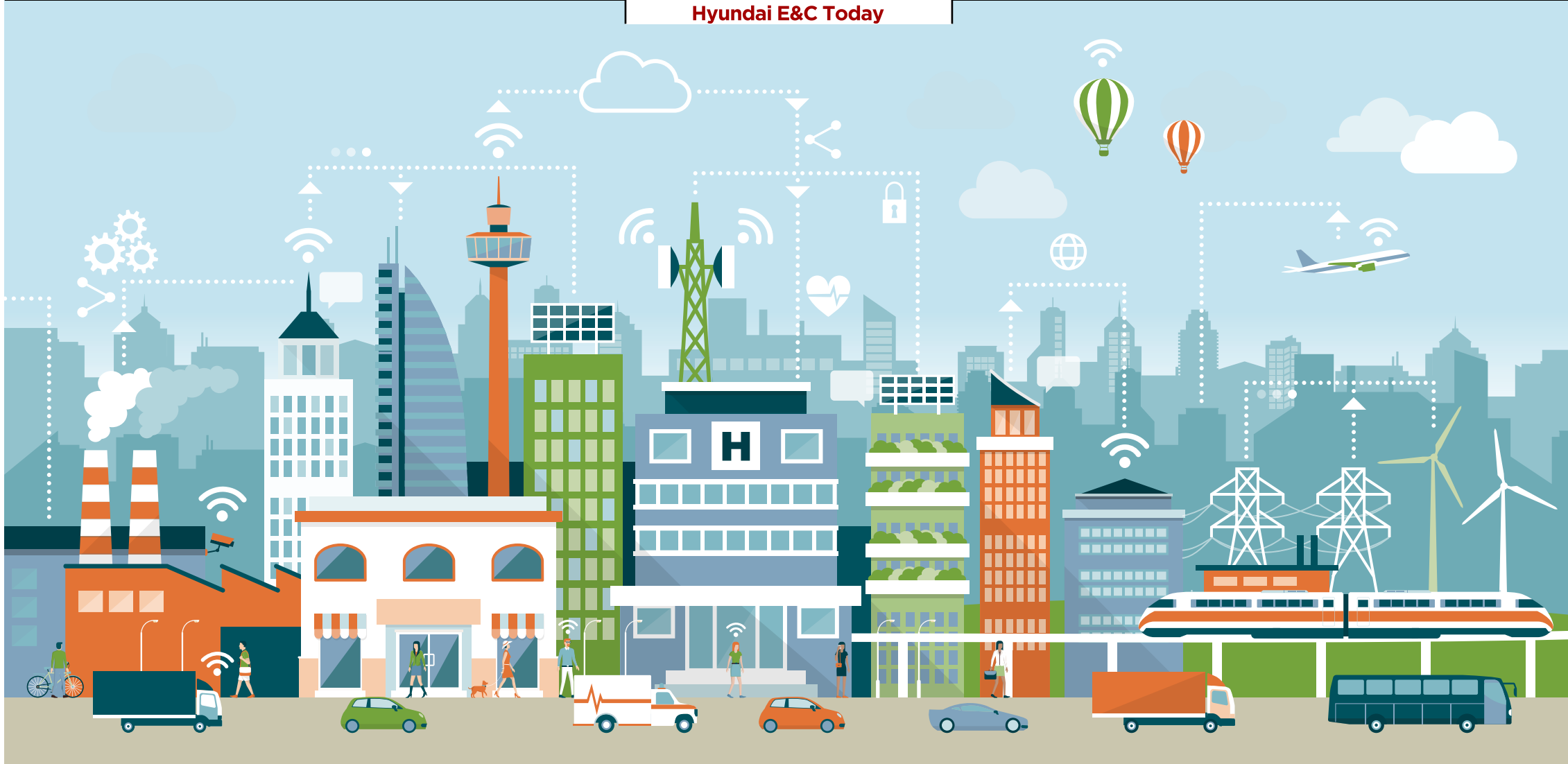
전 공정 무재해 달성… 후속 수주도 기대

해상 작업은 육상 작업보다 두 배, 세 배 더 어렵다. 강우와 강풍, 너울과 같은 해상 기상 조건이 수시로 바뀌고 이에 따라 작업 가능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서해 바다는 조수간만의 차가 크다. 우리 회사는 시간대별 조류표를 만들고 만조와 간조 사이, 조류와 유속이 거의 없는 하루 두시간의 정조 때를 활용해 중요한 공사를 실시했다. 또한 관광 명소인 보령 앞바다에는 유람선과 크고 작은 어선 등이 자주 다니는 데다 항도가 좁아 안전사고의 위험이 언제나 도사리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현장소장 하동재 부장대우의 남다른 안전 보건 방침과 현장 관리가 빛을 발했다. 안전관리 실행 계획을 꼼꼼히 세워 사전에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돌발상황에도 빠르게 대처했다. 해상 공사의 배대량인 공사파트장의 노하우도 십분 발휘됐다. 모든 현장 직원이 노력한 결과 자연재해나 기상 상황에 의한 피해 없이 해상 크레인을 이용한 대형 강구조물 작업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다. 국가 보안 시설 내 작업이라 현장 출입 인원 관리가 철저하게 이뤄졌다는 점 또한 안전관리와 사고예방에 큰 도움이 됐다. 이와 같은 시너지는 전 공정 무재해라는 업적으로 이어졌다. 이번 프로젝트는 국내 5개 발전회사 중 우리 회사와 유일하게 공사 경험이 없던 한국중부발전과의 첫 프로젝트였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크다. 공사의 물꼬를 튼 만큼 앞으로의 추가 수주도 기대된다. 마침 3부두는 수심이 얕은 관계로 2019년 준설 공사를 앞둔 상황. 현장 직원들은 “이번 프로젝트가 성공적인 본보기가 되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추가 수주에 대한 의지를 나타냈다.



1,2 보령 앞바다에 위치한 보령 화력 제3연료하역부두 전경, 3,6 하역부두 하부 강구조물 설치해 해상 크레인으로 420t이 넘는 재킷 9기를 거처하는 대공사였다. 4 진입가대 하부 작업 모습, 5 준공을 앞둔 현장 직원이 마무리 작업에 열중하고 있다.





## 4차 산업혁명과 도시의 융합 ‘스마트 시티’

**트렌드 따라잡기** 올해 들어 스마트 시티가 주목받고 있다. 정부는 8대 핵심선도사업으로 ‘스마트 시티’를 선정, 2020년까지 세계적인 스마트 시티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미래형 도시가 현실로 점차 다가오고 있다.

글=유성민 IT 칼럼니스트

## 산업혁명과 도시 변화

스마트 시티의 권위자인 에든버러 네피어 대학의 루돌프 기핑어(Rudolf Giffinger) 교수는 스마트 시티를 ‘사람, 정부, 환경, 경제 등 다양한 삶이 스마트 인프라 안에서 구축된 하나의 스마트 사회’로 정의했다.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스마트 시티는 특정 기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 집합체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스마트 서비스가 도시 내에 스며들면서 스마트 시티를 이룬 것이다.

스마트 시티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알기 위해서는 4차 산업혁명을 알아야 한다. 4차 산업혁명과 스마트 시티 간에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4차 산업혁명에서 ‘혁명’은 말 그대로 큰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의미한다. 좀 더 풀어 설명하면 산업혁명은 ‘기술의 등장으로 인한 사회의 큰 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사회적인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도시 모습도 당연히 변화됐다. 좀 더 엄밀히 말하면 특정 기술이 사회와 도시 모습을 바꾼 것이다.

1차 산업혁명은 열에너지 기술 등장으로 인한 교통수단과 생산이 자동화되는 시기다. 이때 철도를 움직이게 하기 위한 교통 기반 시설이 갖춰지게 됐다. 2차 산업혁명은 전기 에너지 기반의 컨베이어 벨트 체계가 들어서기 시작할 때다. 이 시기에는 도시에 공장이 들어섬으로 인해 대량생산이 일어나게 된다.

3차 산업혁명은 ‘인터넷’이 등장한 시기다. 전 세계가 연결되고 정보 공유가 활발히 일어났다. 도시 모델 역시 ‘정보 공유형’의 특성을 가졌다. 이러한 도시를 유 시티(U-City)라고 한다. 유 시티는 ‘유비쿼터스 시티(Ubiquitous City)’의 줄임말로, 유비쿼터스는 ‘어디에나 존재하는’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정리하면 유 시티는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시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도시’로 정의할 수 있는데 인터넷 기술이 도시 모습에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 스마트 시티와 유 시티는 어떻게 다른가

그렇다면 4차 산업혁명은 무엇이고, 스마트 시티는 기존 유 시티와 어떻게 다를까? 4차 산업혁명은 한마디로 산업 전 분야와 정보통신기술(ICT) 융합으로 생겨난 혁명으로, 핵심기술은 ICBM(IoT·Cloud·BigData·Mobile)이다. ICBM은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 그리고 모바일이 결합한 기술로 정의하는데 센서 역할을 하는 사물인터넷이 정보를 모아서 클라우드에 보낸다. 그러면 빅데이터는 이를 분석하고 사용자에게 서비스 형태로 모바일로 제공한다.

앨범 들으면 기존 인터넷 시대와 다른 점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두 가지 관점에서 명확히 다르다. 우선 연결 범위가 넓어졌다. 사물인터넷 등장으로 연결되는 기기 수가 증가하고 있다. 과거 인터넷 시대에는 컴퓨터, 휴대전화만 연결 대상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자동차, 세탁기 등이 연결 대상이 되어가고 있다. 참고로 시장 조사 전문 기관 ‘스태티스타(Statista)’에 따르면 사물인터넷 수는 2020년에 300억 기기가 인터넷으로 연결될 전망이다.

또 하나 인터넷 시대와 다른 점은 정보의 가공 수준이다. 빅데이터는 3V로 정의할 수 있는데, Velocity(속도), Volume(규모) 그리고 Variety(다양성)이다. 실제로는 속도와 규모로 빅데이터 여부를 나누는 것은 애매하다. 중요 부분은 '다양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빅데이터는 기계학습을 기반으로 비정형 데이터도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기존 분석 방식은 사람이 입력한 공식에 따라 처리하게 하는 '지식공학'이었다면, 현재 주목받는 기계학습 방식은 데이터를 주면 시스템이 알아서 공식을 만들고 문제를 푸는 방식이다. 이러한 방식은 적용 범위를 넓게 할 뿐만 아니라 분석 수준도 깊게 했다. 예를 들어 고양이와 비교하는 시스템을 개발한다고 해보자. 사람이 고양이를 정의하는 공식을 만들어내는 것은 매우 복잡하고 오차 범위가 넓어서 적용이 어렵다. 반면에 시스템에 수많은 고양이 사진을 주고 스스로 고양이 정의를 내리게 한다면 어떻게?

바둑 천재 이세돌을 이길 알고리즘을 예로 더 들어보자. 사람이 바둑 이세돌을 이길 수 있게 공식을 짤 수 있을까? 개발자가 이 세돌보다 바둑을 더 잘 두지 않는 이상 어려울 것이다. 정리하면 4차 산업혁명은 ‘초연결’과 ‘지능화’라는 특성을 가진다. 그리고 이러한 특성은 스마트 시티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다.

## 세계 곳곳에 조성되는 스마트 시티

앞서 언급한 스마트 시티 특성은 현재 세계 곳곳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례에서 찾아볼 수 있다. 두바이는 ‘세계에서 가장 행복



한 도시'를 목표로 스마트 시티를 추진하고 있는데, '스마트 두바이' 부시장은 행복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인공지능 도입이 필수임을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인공지능 '왓슨'을 보유한 IBM과 함께 스마트 시티를 구축하고 있다. 두바이의 스마트 시티 추진 대표 사례로 '로봇 경찰'이 있다. 두바이 정부는 2030년까지 경찰 인력을 25%를 로봇으로 대체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175cm 키에 100kg 무게를 가진 로봇은 바퀴로 이동을 하는데, 중앙센터의 명령에 따라 사건에 바로 투입된다. 그리고 구글과 IBM의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얼굴 인식뿐 아니라 9개의 언어 인식이 가능하다.

또 다른 사례로 싱가포르의 ‘자율주행 택시’ 도입을 들 수 있다. 싱가포르는 스마트 네이션(Smart Nation)을 목표로 과제를 추진하고 있는데, 자율주행 택시가 그중 하나다. 참고로 싱가포르는 도시형 국가이기 때문에 스마트 시티라는 명칭 대신에 스마트 네이션이라고 명명했다.

자율주행 택시 개발은 스타트업 '누토노미(nuTonomy)'가 맡았다. 누토노미는 미쓰비시의 전기차 i-MiEV를 개조해 일부 지역에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자율주행 택시가 보급되면 집 앞까지 부담 없이 택시를 부를 수 있고 인건비 절감으로 요금도 저렴해진다. 그렇게 되면 자가 차량 이용률을 줄일 수 있는데, 싱가포르 정부는 90만대에서 30만대로 줄 것으로 예상된다.

## 스마트 시티의 중심은 ‘시민’이다

스마트 시티 추진을 위해 반드시 염두에 두야 할 점은 반드시 ‘시민’을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두바이는 스마트 시티의 평가지표로 ‘행복계량기’를 설치해 시민이 행복 정도를 입력할 수 있도록 했다. 한 발 더 나아가 미국 뉴욕시는 뉴욕시민이 ‘NYC BIG’ 앱을 통해 뉴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서로 논의할 수 있게 했으며, 싱가포르의 ‘버추얼 싱가포르(3차원 가상도시 플랫폼)’를 통해 국민들에게 정보를 공유하고 제안할 수 있게 한다.

스마트 시티의 성공은 ‘인공지능’과의 접목을 통한 기술 향상이 아니다. 스마트 시티 추진의 목적은 바로 시민의 ‘행복’이다. 시민이 행복할 수 있는 스마트 시티가 국내에서도 만들어지길 기대해 본다.

| 시대별로 보는 산업혁명의 이모저모 |                 |                        |                  |          |
|--------------------|-----------------|------------------------|------------------|----------|
| 구분                 | 1차 산업혁명         | 2차 산업혁명                | 3차 산업혁명          | 4차 산업혁명  |
| 도시 모델              | 교통 기반 시설을 갖춘 도시 | 공장이 들어선 도시             | 유 시티             | 스마트 시티   |
| 시기                 | 18세기 후반         | 19~20세기 초              | 20세기 후반          | 2016년~   |
| 핵심 기술              | 열에너지를 이용한 증기기관  | 전기 에너지 저장<br>과 컨베이어 벨트 | 인터넷 기반의<br>지식 정보 | ICBM     |
| 핵심 가치              | 생산의 자동화         | 대량 생산                  | 정보 혁명            | 초연결, 지능화 |



**피플 인사이드** 작가 유시민이 오랜만에 내놓은 신간 『역사의 역사』는 고대부터 최근까지의 역사서와 역사가들이 생각하는 역사를 탐문한다. 이 책은 저자가 ‘역사는 무엇인가’라는 오랫동안 가져온 질문의 답이자 지적 과제의 답이다. 작가 유시민이 말하는 역사의 매력을 들어보자. 글=엄지예 / 사진=신화섭

## 유시민의 역사 르포르타주!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생각과 감정을 나누다

### ‘역사의 역사’를 여행하는 패키지 투어

#### 『역사의 역사』는 왜 썼나?

우리나라 사람이 가장 많이 읽은 역사서 중 하나가 에드워드 H. 카의 『역사란 무엇인가』다. 내가 대학생 때 읽은 책이니 무려 50년 가까이 꾸준히 읽었는데, 유럽사를 토대로 한 책이라 우리가 읽기엔 부담이 있지 않나 생각했다. 그래서 한국 사람에게 맞는 책을 쓰고자 했다. 내가 역사학자가 아니고 ‘역사가 무엇인가’에 정답이 있는 것도 아니라 ‘역사가들이 본 역사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역사책에서 찾아보고자 했다.

#### 발생사를 먼저 짚은 이유는?

역사를 이해하려면 발생사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알려면 언제 어디서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 무슨 공부를 했는지 알아야 한다. 역사도 마찬가지다. 이른바 최초의 역사서라고 말하는 책부터 최근 관심을 받기 시작한 역사서에 이르기까지, 실제 역사가들이 서술한 역사가 어떤 모습이었고, 어떤 변화를 거쳐 지금에 이르게 됐는지를 따라가 보는 일이 ‘역사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대한 답인 것 같았다.

#### 처음 가제도 ‘역사의 역사’였나?

그렇다. 역사서에 관한 책을 쓰려니 나도 책을 다시 읽어야 했다. 역사가 입장에서 역사책을 바라보고, 역사가들이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책을 썼는지에 주목했다. 역사책 자체에 대한 상세한 소개나 비평보다는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초점을 맞췄다. ‘역사가들이 왜 역사책을 썼나, 왜 하필 그런 대상을, 그 사건을 썼을까’에 감정이입 했다.

#### 책의 타이틀이 ‘역사로 남은 역사가와 역사서를 탐사한 지식 르포르타주’다. 이것 역시 유시민이 바라본 역사서로 읽힐 텐데?

아무래도 그렇겠지만, 가장 큰 비중을 둔 부분은 ‘역사가 무엇인지’에 대해 독자들이 감을 잡길 바랐다. 정보를 압축해서 전달하는데 머물지 않고, 내가 역사책을 읽으면서 배운 것, 새롭게 느낀 것, 알고는 있었지만 중요하지는 미처 몰랐던 것들에 대해 썼다. 역사책을 자세히 살펴보면 단순한 서술이 아니다. 저자가 글을 쓰면서 느꼈던 감정들이 들어 있기 때문에 그 감정을 살펴 읽어야 한다. 이 감정을 독자들과 나누고 싶었다.

#### 에필로그 제목이 ‘서사의 힘’인 이유는?

어떻게 보면 이 책은 ‘역사의 역사’를 여행하는 패키지 투어다. 가이드가 있는 패키지 투어를 다녀와 본 적 있나? 굉장히 효율적



으로 신속하게 가이드의 설명을 들으면서 다닌다. 크게 여행 준비를 하지 않고 따라가도 도시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와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역사의 역사』는 이런 성격을 가진 책이다. 소소하고 자잘한 재미가 부족하고 어떤 면에서는 한계가 있는 책일 수 있지만 그 한계 속에서 어떤 유용성을 갖는 책으로 읽혔으면 하는 바람이다.

#### 역사서를 읽다 보면 도저히 공감이 안 되는 책도 많지 않나?

많다. 그런 책들은 읽기도 힘들고 공감도 되지 않아 어렵다. 책에도 이런 감상을 솔직하게 썼다. 어떤 책은 굉장히 훌륭하고 공감도 크지만 접근하기 어려웠다. 도시로 치면 정확한 지도도 안내문도 없고 교통마저 매우 불편한 거다. 그런 책들도 있지만 분명 나에게 맞는 역사서는 있다. 『역사의 역사』를 읽다가 그렇게 느끼는 책이 있으면 긴 시간을 두고 도전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한다.

#### 감정을 전달하는 역사서라야 독자의 마음을 움직인다

#### 책에 소개한 역사서가 18권이다. 역사서를 좀 더 쉽게 소개하고자 노력한 부분이 있나?

노력이라기보다 어떤 주안점이 될 수 있을 텐데, 많이 느낀 점은 역사책을 쓴 사람도 ‘사람’이라는 점이다. 헤로도토스, 투키디데스, 사마천 등 그 옛날 2000년, 2500년 전 역사가들도 정말 똑같더라. 그들은 글을 파피루스에, 우리는 컴퓨터와 스마트폰으로 쓸 뿐 크게 다른 게 없다. 모두 ‘감정’ 있는 사람이 쓴 책이다.

#### 역사가들도 어떤 감정, 욕망으로 책을 썼다는 의미인가?

그렇다. 그들도 인간적인 욕망이나 소망, 감정을 갖고 역사책을 썼다. 평소 자주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타인의 감정을 눈여겨보면 나와 타인을 잘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감정들이 역사책 속에도 있다. 직접 드러나지 않았을 뿐, 어떤 장면을 묘사한 대목을 보고 있으면 내가 느꼈던 수많은 긍정적, 부정적인 감정들이 똑같이 살아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즉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 나에게 무엇이 중요하고 덧없는 것인지를 아는 데 도움이 된다. 초기의 역사가들은 자기 존재를 남기고 싶은 욕망이 아주 강했다는 걸 알 수 있다. 눈여겨볼 점은 이들이 역사에 오래 남을 수 있었던 건 그들의 욕망 때문이 아닌 ‘작업의 탁월성에 있다’는 사실이다. 역사가들이 역사 서술을 왜 했을까? 잘 따져보면 자기 욕망, 갈망을 충족하는 하나의 방법이였음을 알 수 있다.

#### 예를 든다면?

사마천의 저작들을 보면 알 수 있다. 사마천의 『사기』는 인간 혁명의 보물창고이자 결국은 평범한 얘기들인데 사람이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꼭 가치가 있거나 행복한 게 아니라는 걸 말한다. 사마천이 묘사한 인간 군상을 보면 권력, 서열, 관계, 상속에 관한 이야기가 많다. 현대 시대에 가장 큰 권력은 한 나라의 대통령에게 있지만, 삶의 현장으로 내려오면 소소한 권력 관계가 엄청 많다. 회사로 따지면 거래처도 있을 것이고 팀장, 사장, 고객

도 있을 텐데 다 권력 관계다. 내 의지를 관철할 수 있는 상대가 있고 그렇지 못한 상대도 있다. 사마천의 저작을 보면 사람이 어떻게 권력관계에 대응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다. 그래서 역사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감정을 할 수 없다.

#### 역사서를 통해 감을 관계를 고민할 수 있다면, 많은 사람이 역사서를 꼭 읽어야겠다.

『사기』를 읽고 나면 내가 권력관계에서 감의 이미지에 있을 때 그 권력을 부당하게 행사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를 많이 느끼게 된다. 어떤 위치에 있더라도 비굴하지 않게 한 인간으로서 올바르게 권력관계에 대처하는 법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사기 열전』을 경영자들이 많이 읽는다. 또 읽어야만 한다.

#### ‘감정이 들어간 역사서’ 생각해 보지 못한 정이다.

많은 역사가를 살펴보면 굉장히 거만한 사람도, 사마천 같이 자애로운 사람도 있었다. 역사서를 읽다 보면 역사가들의 성격이 느껴진다. 그 성격이 반영돼서 글이 나오기 때문에 역사는 그냥 학문이 아니다. 물론 과학도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완성된 형태의 역사는 문학이 아닐까 생각한다. 따라서 역사서는 단순한 정보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감정을 전달해야 한다. 감정을 전달하는 역사서라야 독자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 영국의 사학자 토인비가 “위대한 역사가는 위대한 예술가일 수밖에 없다”고 말하지 않았는가. 토인비 역시 굉장히 많은 역사책을 읽고 나서 이런 결론에 도달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거장의 말은 정말 허투루 해석하면 안 되는 것 같다(웃음).

#### 유시민의 책이라서 이 책을 볼 독자가 많을 거라 예상한다. 어떤가?

근 3년간 강연을 다니지 않았지만, 가끔 무서운 독자를 만난다. “유시민 책을 다 읽었다”고 말하는 분들이다. 정말 무섭다. 왜냐면 다 알고 있기 때문이다. 책들에서 중복되는 이야기, 과거와 달라진 나의 시각. 이런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무서워진다. 그래서 책을 모두 읽은 분은 없었으면 좋겠다. 다행히 책을 읽는 분들이 다 같지는 않은 것 같다. 인문 쪽에 깊은 관심을 가진 분이 있는가 하면, 정치적 관심이 높은 분들도 있다. 어떤 독자들은 자기 계발 측면에서 책을 읽기도 한다. SNS나 블로그를 보면 각자 좋게 읽은 책들이 다르더라. 그래서 독자들이 내게 뭘 원하는지 생각하면 사실 잘 모르겠다. 다만 “책을 계속 내달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말을 들을 때면 계속 써야겠구나 싶다. 굉장히 감사하다.

#### 『역사의 역사』를 읽고 나면, 내게 맞는 역사책 한 권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저자로서 기대하는 바가 아닌가?

바라는 바다. 이 책은 이미 역사에 어느 정도 호기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주로 읽지 않을까 생각한다. 역사책을 읽는 방법이 궁금했던 독자라면 흥미롭게 읽어 주실 것 같다. 모든 역사책이 그렇지만 이 책 역시 저자에게 감정이입을 해서 읽으면 훨씬 흥미롭게 다가올 거라 생각한다.



## 취향 따라 골라 마시는 재미, 지역별 특색을 담은 수제맥주 전성시대

**문화칼럼** 요즘 수제맥주가 ‘맥덕(맥주 덕후)’ 사이에서 ‘힙(새롭고 특이해 유행에 앞서다)’하다. 크래프트 비어(Craft beer)로 불리는 수제맥주는 2011년 주세법이 개정된 이후 대기업은 물론 개인까지 전국 각지에서 양조장을 만들면서 대중화되기 시작했다. 전통맥주를 재해석해 다양한 레시피로 맛과 향, 색으로 차별화한 수제맥주들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는가? 입맛 따라 골라 마실 수 있도록 지역별 맥주를 소개한다. 글=강은비 / 사진=각 제조사 제공

### 1 강서 마일드 에일

청와대 만찬주로 유명해진 강서맥주는 에일맥주 계열로 많은 양의 홉을 사용해 더욱 풍부한 맛과 향을 낸다. 맥아의 고소함과 오렌지 등에서 느껴지는 시트러스 향이 특징이다. IBU\* 25로 가볍고 깔끔한 뒷맛이 인상적이다. 푸른색 라벨 디자인은 여름밤의 한강을 떠올리게 한다. \*ABV 4.6%, ©세븐브로이

### 2 광화문 맥주

서울의 중심인 ‘광화문’을 모티브로 한 이 맥주는 광화문과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일러스트를 패키지 디자인으로 사용해 서울의 트렌디함을 표현했다. 상면 발효\* 방식으로 제조해 다른 에일에 비해 쓰지 않고 깔끔한 마무리를 즐길 수 있다. 홉 특유의 향이 강하고 붉고 진한 빛깔이 인상적이다. ABV 5%, ©ARK

### 3 서빙고 맥주

취향 만큼 알코올 함량이 높은 맥주를 원한다면 ‘서빙고’ 맥주가 딱이다. 국내 최초 트라페 에일 스타일로 제작된 이 맥주는 전통을 지닌 벨기에 수도원 방식으로 양조됐다. 벨기에에서 공수한 효모와 일반 맥주 세 배 수준의 몰트를 써 깊은 맛과 풍부한 과일 향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ABV 8.5%, ©ARK

### 4 서초 위트

발랄한 노란색 라벨 디자인이 눈에 띄는 ‘서초 위트’는 밀맥아를 사용해서 만들었다. IBU 20으로 다른 밀맥주에 비해 텁텁함이나 쓴 맛이 덜해 가볍게 마시기 좋다. 특유의 바나나 향과 밀맥만의 부드럽고 밀도 높은 거품이 풍미를 더한다. ABV 4.2%, ©세븐브로이

### 5 강릉 미노리 세션, 백일홍 레드 에일

강원도 강릉시에 가면 버드나무 브루어리를 둘러보자. 강릉에서 나는 재료와 이야기를 담은 수제맥주를 만날 수 있다. 강릉 사천면 미노리에서 수확한 쌀이 40%나 들어간 ‘미노리 세션 맥주’와 강릉시의 꽃인 백일홍을 떠올리게 하는 붉은빛의 ‘백일홍 레드 에일’이 주인공이다. 백일홍 레드 에일은 가볍고 산뜻한 바디감으로 여성들에게 특히 인기가 좋다.

각 ABV 4.5%, 6%, ©버드나무 브루어리

### 6 제천 솔티 8 더블 IPA

제천 솔티마을의 벡크리크 브루잉에는 제천의 이야기를 담은 특별한 맥주가 있다. ‘솔티 8더블 IPA’로 항일의병 류인석 의병장의 격문 중 한 구절인 ‘팔도에 고하노라’를 맥주의 부제로 삼아 의병도시 제천을 기리고자 했다. 숭고한 의미는 물론 맛까지 훌륭한 이 맥주는 IBU 200으로 깊은 바디감과 여러 번의 드라이

호핑이 만든 향긋한 홉 향까지 풍성하게 느낄 수 있다. ABV 8%, ©벡크리크 브루잉

### 7 공주 밤마실 에일

공주 특산물인 알밤으로 만든 수제맥주도 있다. 바로 바이젠 하우스의 ‘밤마실 에일’. 공주 알밤을 찌낸 후 살짝 구워 만든 브라운 에일 스타일의 맥주다. 밤의 고소한 맛은 물론 일반 맥주와는 다르게 효모가 발효될 때 생성되는 자연 탄산을 사용해 맥주의 묵 넘김까지 좋다. 부드럽고 깊은 풍미에 시트러스한 향이 가미돼 상쾌한 맛까지 느낄 수 있다. ABV 5%, ©바이젠 하우스

### 8 광주 광산 바이젠, 위메 IPA

‘광산 바이젠’은 우리나라 밀 생산의 70%가 이뤄지는 광주의 광산 밀을 사용해 양조한

맥주다. 풍부한 과일 향이 나는 밀맥주로 크림이 한 거품이 일품이다. 광주하면 떠오르는 무등산 수박을 사용한 맥주도 있다. ‘위메 IPA’는 위터멜론의 약자이자 마시면 ‘위메~’라는 감탄이 절로 나와 사투리 초성을 따서 작명했다고. 무등산 일대에서 재배한 수박을 첨가해 달콤한 수박향은 물론 IPA 특유의 바디감과 씹쓸한 맛까지 즐길 수 있다. 각 ABV 4.5%, 6%, ©무등산 브루어리

### 9 문경 오미자에일, 문경새재 페일에일

경상북도 가나다라 브루어리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한옥을 살린 양조장이다. 문경의 특산물인 오미자로 만든 ‘오미자 에일’은 화이트 에일 스타일의 맥주다. 오미자의 새콤함과 풍부한 향까지 살려 상큼한 맛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인기다. ‘문경새재 페일 에일’은 홉과 맥

아의 균형감을 뚜렷하게 맞출 수 있는 맥주다. 홉과 몰트의 맛과 향을 느끼기 어렵지 않아 수제맥주 입문에 제격인 맥주다.

각 ABV 4.5%, 4.8%, ©가나다라 브루어리

### 10 대구 달서오렌지 에일

강서맥주와 같이 청와대 만찬에 올라 유명해진 달서맥주는 대구 달서구를 브랜드화했다. 대구에서 맥주 판매 1위를 달성할 만큼 사랑받고 있는 달서맥주는 밀 몰트와 보리 몰트를 혼합, 발효시켜 만든 에일 맥주로 시트러스 특유의 상큼한 아로마와 밀맥주의 묵직함까지 느낄 수 있다. 상큼한 오렌지 향에 IBU 20으로 부담 없이 마시기 좋다. ABV 4.2%, ©세븐브로이

### 11 여수 에일

낭만적인 여수 밤바다가 떠오르는 ‘여수 나이트 에일’은 맑고 짙은 색상의 앰버 에일로 전라도산 보리를 사용해 고소하고 담백한 맛을 낸다. 다양한 맥아를 블렌딩해 스페셜 몰트의 맛을 한층 더 풍부하게 이끌어낸 것이 특징이다. 보리 특유의 바디감과 커피 향 아로마가 훌륭한 균형을 이룬 여수 맥주에 취해 보는 것은 어떨까. ABV 5%, ©ARK

### 12 해운대 에일

여름과 바캉스, 시원한 맥주는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해운대 에일’은 여름철 부산 바다를 떠올리게 하는 지역 맥주다. 수제맥주 중 최초로 캔으로 제작돼 휴대성을 높였다. 밝고 열은 황금빛과 파인애플의 달달한 향이 특징인 해운대 에일은 적당히 씹쓸해 낮에도 가볍게 마시기 좋다. ABV 4.2%, ©ARK

### 13 제주 위트 에일

제주의 맑은 터키색 바다를 보면 떠오르는 맥주가 있다. 제주의 지형 특성이 화산과 바다를 아이콘화한 제주 위트 에일이다. 제주도의 청정 원료인 물과 감귤 껍질을 사용해 제주만의 특색을 살린 것이 특징이다. 상큼한 감귤향과 독일산 보리와 밀맥아를 배합해 묵 넘김이 부드럽고 풍미가 좋아 에일 맥주 입문자들도 편하게 즐길 수 있다. 더운 여름 일상에 지쳤다면 시원한 제주 맥주 한잔은 어떨까.

ABV 5.3%, ©제주맥주



#### 알아두면 좋은 맥주 용어 상식

**Malt** 맥주의 재료 중 하나로 맥아라고도 부른다. 맥주는 맥아의 종류와 볶는 정도에 따라 맛과 색, 향이 달라진다.

**Hop** 솔방울같이 생긴 식물로 맥주의 씹쓸한 향과 다채로운 맛을 최종으로 결정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 미생물 번식을 막는 천연 방부제이기도 하다.

**발효** 발효 방법에 따라 바디감이 결정된다. 상면 발효(높은 온도)를 하면 에일로, 하면 발효(낮은 온도)는 라거 맥주가 된다.

**IBU** International Bitterness Units의 줄임말로 맥주가 얼마나 쓴지를 표기한 지수다. IBU 뒤에 붙는 숫자가 높을수록 쓴맛이 강하다.

**ABV** Alcohol by Volume의 줄임말로 알코올 함량을 뜻한다.



**생각의 좌표** | 수명이 늘어난 ‘인생 100세 시대’, 준비된 자만이 축복을 누릴 수 있다.

## 인생도 직장생활도 국가 전략도 ‘선승구전(先勝求戰)’으로

### 러시아 월드컵에서 일어난 큰 이변

2018러시아 월드컵 본선에서 일어난 큰 이변(異變) 중 하나는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15위인 멕시코가 세계 최강(랭킹 1위)인 독일을 1대 0으로 이겼다는 것이다. 경기 내내 ‘빠른 역습 축구’로 독일을 무찌른 멕시코의 승리 중심엔 ‘학구파’인 지장(智將) 후안 카를로스 오소리오(57) 감독이 있다. 그는 “독일전 전략을 본선이 열리기 6개월 전에 이미 짰다”고 했다.

같은 F조에서 멕시코의 맞상대로 FIFA 랭킹 격차가 40위 넘게 벌어져 있는 한국(랭킹 57위)에 대해서도 그는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오소리오 감독은 한국이 주요 선수를 대거 뺏을 1~2월 터키 안탈리아 전지훈련에 시에라 Leone로 수석코치를 보내 전력 분석을 했다. 그 자신은 올해 초 휴가기간에 네덜란드로 직접 가거스 허딩크 전 한국 대표팀 감독을 만나 한국 팀의 장단점을 살피고 파악했다.

이번 월드컵에서 한국의 첫 상대였던 스웨덴의 안네 안데르손 감독은 어땠을까. 그는 한국을 1대 0으로 꺾은 뒤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경기가 잘 풀려 좋다. 분석관들을 통해 1300여 건의 한국팀 관련 비디오테이프를 분석했고 이걸 20분 분량으로 재편집해 선수들에게 보여줬다. 그 결과 등번호와는 무관하게 우리는 한국 선수들을 모두 다 잘 알게 됐다.”

### 지피지기, 백전백승

필자는 두 축구 감독의 무자비할 정도로 철저한 준비와 상대방 분석 노력을 접하면서 중국 춘추전국 시대 병법(兵法)의 대가인 손무(孫武)가 쓴 『손자병법』 형(形)편에 나오는 ‘선

승구전(先勝求戰)’을 떠올렸다.

“전쟁을 잘 하는 자(善戰者)는 ‘패하지 않는 땅(不敗之地)’에 서며, 적의 패배(허점)를 결코 놓치지 않는다(不失敵之敗也). 승리하는 군대는 먼저 승리 여건을 갖춘 뒤 싸움을 걸고(勝兵先勝而求戰), 패배하는 군대는 먼저 전쟁을 시작한 후 승리를 구한다(敗兵先戰而求勝).”

멕시코와 스웨덴 감독이 한 행동과 조치는 상대방을 아는 ‘지피(知彼) 전략’의 일환이다. 하지만 동시에 전쟁에 앞서 자기 진영을 철저하게 갖추고 상대의 빈틈을 독수리의 눈으로 노리고 공략하라는 손무의 가르침과 일맥상통한다.

“전쟁을 잘하는 자는 먼저 적이 승리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는다(善戰者先爲不可勝). 그 후 적을 기다려야 승리할 수 있다(以待敵之可勝).” 상대방을 이길 수 있을지, 없을지는 예상하기 힘들다. 적의 실력을 파악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나마 실력 차이는 종이 한 장에 불과하다. 그러나 상대방이 나를 이기지 못하게 하는 것은 가능하다. 내가 완벽하게 준비해놓고 있으면 되니까 말이다. 상대방이 감히 어찌할 수 없도록 방비를 튼튼히 해놓고 정찰·분석하며 기다리면 분명 적에게 허점이 보일 것이라는 게 손무의 설명이다.

### 이기는 군대는 먼저 이길 조건을 만든다

세계 역사를 보더라도 전력은 훨씬 열세였어도 그런 한계를 뒤집고 이긴 사례가 여럿 있다. 중국 국민당의 장제석 군대, 세계 최강 미국 군대에 비해 크게 약세였던 마오쩌둥의 중국 공산당 인민해방군, 호찌민의 베트남이 승리한 게 대표



적이다. 우리나라 역사에서는 임진왜란 당시 ‘23전(戰)23승(勝)’의 대업을 세운 이순신 장군이 주인공이다.

12척의 전선(戰船)을 갖고 왜군 133척에 맞서 대승한 명량해전은 ‘전쟁을 하기 전에 먼저 이길 수 있는 여건을 충분히 만들어 놓는다’는 선승구전 전략의 산물이다. 첫째, 울돌목(명량) 일대 남해 바다의 복잡한 지형지물을 원하게 파악해놓고 둘째, 함포 활용 능력과 기동력이 뛰어난 조선 수군(水軍)의 강점을 최대한 활용하며 셋째, 상대방인 왜(倭) 수군의 강약점을 꿰뚫은 3중4중의 첩통같은 준비로 수적(數的) 열세라는 한계를 극복해 낸 것이다.

‘이기는 군대는 먼저 이길 조건을 만들어 놓고 전투를 한다’는 ‘선승구전’을 적용할 곳은 지금도 많다. 일상·가정·직장생활은 물론 시장에서 입찰·수주·마케팅·협상 등에서 모두 구사해

볼만한 유용한 지략(智略)이 ‘선승구전’이다.

세계 각국에서 고조되고 있는 통상 마찰이나 북한과의 비핵화, 미국·중국 등 강대국과의 외교 관계에서도 철저한 준비와 상대방에 대한 분석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왕 하려면 손무가 강조 한대로 상대방에게 휘둘리지 않고 ‘상대방의 운명을 좌우하는 수존(能爲敵之司命)’까지 철저하고 지독하게 준비하고 또 연구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한다면 상대방이 개인이든 조직이든 국가든, 100번 싸워도 절대 두렵거나 위태롭지 않을 것이다.

송의달 <조선일보> 오피니언 에디터

※ 본 칼럼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문화 책갈피

바쁜 일상을 뒤로하고 이유 있는 나른함을 즐기는 휴식의 시간. 틈틈이 책 속에 빠져보면 어떨까? 휴가지에서 읽으면 좋은 책을 소개한다.

## 휴가 떠날 때, 이 책 어때요?



### 어쩌면 우리가 거꾸로 해왔던 것들

저자 김경일  
출판사 진성북스

지난해 3월 핵심가치 오픈클래스 강연으로 현대건설을 찾았던 김경일 교수가 『어쩌면 우리가 거꾸로 해왔던 것들』을 펴냈다. 김 교수는 책을 통해 기존에 당연하다고 믿으며 반복적으로 행하던 여러 상황에서 ‘거꾸로’가 답인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다. 막연하게만 여겨오던 인간관계를 한 단계 높이고 싶다면 읽어보자.



### 애주가의 대모험

저자 제프 시울레티  
출판사 더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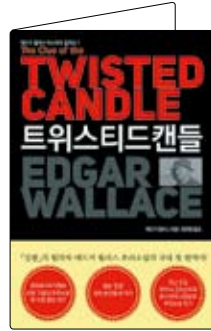
1년 52주 동안 매주 다른 종류의 술을 마셔온 한 남자의 음주가가 출간됐다. 싸구려 테킬라나 흔한 술로 만족하기엔 주류의 세계가 너무나 심오하다고 생각한 저자는 1년 동안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훌륭한 술 전문가와 술을 만났다. 책을 읽다 보면 애주가도, 비(非)애주가도 어느덧 매력적인 술의 세계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 힘 빼기의 기술

저자 김하나  
출판사 시공사

휴가지에서만이라도 몸과 마음을 느슨하게 하길 원한다면 수필집이 딱이다. SK텔레콤 ‘현대생활백서’, 네이버 ‘세상의 모든 지식’ 외 수많은 히트 광고를 쓴 카피라이터 저자가 여러 잡지에 기고한 단편과 과거에 기록해 뒀던 수필을 모았다. 유연한 사고방식이 가려져주는 유쾌한 일상이 궁금하다면 읽어 보자.



### 트위스티드 캔들

저자 에드거 월리스  
출판사 양파

여름철에는 단연 추리소설이다. 책의 저자는 코난 도일, 애거서 크리스티와 동시대 사랑받은 추리소설 작가 에드거 월리스. 1933년 영화 <킹콩>의 각본가로도 알려져 있다. 그의 국내 첫 번역서인 이 책은 의문의 살인 사건과 강력한 용의자인 인간의 탈을 쓴 악마 레밍턴 카라의 실체를 파헤치는 내용이다. 읽기 시작하면 손에서 놓을 수 없다.



### 보노보노의 인생상담

저자 이가라시 미키오  
출판사 늘

일본의 인기 만화 <보노보노>의 작가가 인생 상담을 진행했다. “해달이 되고 싶어요” 같은 내용만 있는 게 아니다. “진정한 ‘나’란 무엇인가요?” 같은 진지한 질문들도 있다. <보노보노> 속 보노보노, 너부리, 포로리의 수다는 이들이 던지는 질문의 대답이 된다. 따뜻한 그림까지 곁들여져 있으니 휴가지에서 편안하게 보기에 손색없다.



## 현대건설 ‘나.동.소’

나의 든든한 동료를 소개합니다.

바쁘고 정신 없는 직장생활이지만 곁에서 버팀목이 되어주는 동료가 있어서 든든하다. 우리 회사는 지난 5월 25일부터 6월 3일까지 임직원을 대상으로 ‘동료와 함께한 사진&사연’ 공모전을 진행했다. 이번 공모전에는 임직원들의 생생한 회사 생활과 함께 끈끈한 동료애를 느낄 수 있는 사진들이 소개돼 많은 공감을 얻었다.



김우현 사원 소사-원시 복선전철 1공구 현장

눈과 얼음의 나라, 남극에 대한민국의 두 번째 기지인 남극 장보고 과학기지가 2014년 준공됐습니다. 매서운 추위와 강풍, 변화무쌍한 날씨. ‘남극’이라는 특수 환경에서는 모든 것이 불확실했습니다. 하지만 저를 포함한 14명의 직원과 근로자들이 ‘현대건설 특유의 조직력’으로 뚝뚝 뚫힌 결과 무사히 준공했습니다. 역시 현대건설이기에 할 수 있었습니다.



박현준 대리 경영기획실

2014년 여름, 코트디부아르 아지토 발전소 현장. 덥수룩한 머리를 깎고 싶어 총무과장님이 모셔온 ‘동네에서 가장 유명한 이발사’에게 머리를 맡겼습니다. 손거울 하나 없이 현장 숙소 한 쪽에 마련된 임시 이발소 의자에 앉았습니다. 이발사가 이리저리 머리를 다듬길 한 시간. 뿌듯한 표정을 지으며 “Finish!”를 외치는 이발사에게 “Thank you”를 연발하며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울을 본 순간, 바가지 머리 가!!! 다행히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feat. 이은호 DR)



이부유 과장 토목국내사업실

08사원이 입사한 지 어느덧 10주년, 불기운이 만연한 2018년의 어느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저희 08사원들의 입사 10주년을 자축하기 위해 기념파티를 열었죠. 어떤 이는 10년 전 청춘인 것처럼 파티에서 기억과 가방을 잃고, 어떤 이는 술에 취해 고래고래 노래만 불렀지만 모두가 즐거웠던 추억입니다. 아마 15주년, 20주년 기념파티에서도 저희가 처음 만났던 2008년처럼 행복할 것 같네요. 08사원이여, 영원하라!

이진수 대리 발전수주영업실

아무것도 모르던 입사 1년차. 뜨거운 열정과 우정을 품고 동기들과 함께 베트남 몽정1 현장으로 부임하던 날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많은 분의 노력과 땀방울로 프로젝트는 성공적으로 완료됐고, 동기들은 세계 각지로 흩어졌지만 마음만은 여전히 같은 현장에 있는 듯합니다. 사진 속 패기 넘치던 신입사원 시절처럼 지금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을 동기들에게 보고 싶다는 말과 함께 응원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김지연 사원 고객센터

안녕하세요. 저희는 현대건설 고객센터 직원들입니다. 여기 모인 동료들이 함께한 지 벌써 5년. 서로 도우며 지내다 보니 ‘한국 표준협회 3년 연속 골 품질 1위 우수센터’로 선정되는 영예까지 얻었습니다. 최전방에서 목소리로 처음 대면하는 고객님들께 ‘보이지 않아도 감동시킬 수 있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민원으로 지치고 힘들지만 서로에게 늘 힘이 되어주는 우리 동료들. 사랑합니다~앞으로도 이 멤버 리멤버 포에버!



황석열 과장 중앙선 도담~영천 복선전철 1공구 현장

2012년 7월 경전선 환안~진주 BTL 현장. 철도 개통을 5개월 남겨둔 상태에서 협력업체 타절로, 현장 직원들이 일주일 동안 번갈아가며 터널 바닥면을 정리했던 장면을 공개합니다. 당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돌이켜 보면 좋은 추억입니다. 공기 준수를 위해 전 직원이 하나 되어 함께했기에 오늘의 현대건설이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함께 근무했던 동료에게 다시 한번 수고하셨습니다 말씀드리며,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길 기원합니다.



최병기 사원 싱가포르 해저 유류기지 공사 현장

싱가포르 JRC1 추가공사 PP1A 현장. 처음 하는 TBM 공법이라 두려움도 있었지만 최성찬 부장님을 만나 많이 배우고 노력한 덕분에 무사히 터널을 관통할 수 있었습니다. 아직도 매일 현장에서 공법을 연구하고 싱크홀을 걱정하던 모습이 생깁니다. 발주처와 협의하시느라 고생한 우병규 과장님! 현장에서 발생한 문제를 바로바로 해결해 주셔서 빨리 준공할 수 있었습니다. 두 분을 만나 함께 일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고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성주 사원 국토정보교육원 현장

우리의 첫 만남은 현대건설 기술교육원이었습니다. 교육생으로 만나 1년 동안 동고동락하며 함께 공부하고 장난쳤던 친구들이 지금은 어엿한 현대건설 신입사원이 됐습니다. 비록 서로 다른 현장으로 뿔뿔이 흩어졌지만 UC와 개인 연락처로 연락하며 모르는 업무를 서로 알려주며 돕고 있습니다. 자라나는 새싹으로 현대건설에 이바지하겠습니다. 현대건설 기술교육원 79-2기 친구들아~~ 힘내자! 파이팅!!



유예지 사원 힐스테이트 리버시티 현장

‘힐스테이트 리버시티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이 가족이다’라는 슬로건으로 전 직원이 함께 준비한 간식 나눔 행사! 간식을 준비하는 내내 굶고 있어도 마음만은 행복했습니다. 행사를 시작할 무렵 아침 햇살이 현장을 환하게 밝혀줍니다. 준비하는 과정 자체가 너무나도 행복했던 그 순간을 같이한 동료와 함께 추억으로 남기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동료이자 가족입니다. 힐스테이트 리버시티가 아름답게 지어질 이곳은 우리의 집입니다.

